

小說에 나타난 知識人の 樣相(1)

— 특히 20年代 作品을 中心으로 —

趙 鎮 基

<內 容>

- | | |
|----------------------|------------|
| I. 序 論 | 의 樣相 |
| II. 知識人の 概念과 特性 | 1. 廉想沙의 경우 |
| 1. 知識人の 概念과 範疇 | 2. 玄鎮健의 경우 |
| 2. 知識人の 特性과 社會的 機能 | 3. 崔曙海의 경우 |
| 3. 20年代現實과 知識人 問題 | IV. 結 論 |
| II. 20年代 作品에 나타난 知識人 | |

I. 序 論

西歐에 있어서 近代的인 市民階級の 擡頭가 近代小說文學을 形成하게 하는 하나의 要因이라 할 때 韓國의 近代文學은 西歐의 그것과는 상당히 異質的인 토대에서 生成, 發展해 왔다고 하겠다. 그 結果 西歐小說이 一般的으로 庶民을 主人公으로하여 展開되어지는데 比하여 우리小說은 西歐小說과는 달리 上流階級の 人物을 主軸으로 展開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것은 韓國의 傳統的 小說樣式이 그 構造類型面에서 英雄의 一代記¹⁾와 一致한다는 事實과 아울러 韓國의 社會 여건이 西歐와 같은 市民階級을 形成하지 못한 舊傳統的인 社會體制에서 몇몇 日本 유학생인 先覺者에 의하여 下向式 近代化²⁾가 韓國의 現代小說에 그대로 反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韓國의 現代小說에 있어서 主人公이 知識人이나 上流階層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이 결코 前近代的인 作品으로 過少評價될 수 없으며, 그것은 韓國文學을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要因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叙上한 바와같이 韓國의 近代化過程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더

1) 趙東一: 英雄의 一生—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10, 參照.

2)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探究堂, p. p. 298~299 參照.

나아가서는 韓國의 近代文學이 形成된 時期가 植民地下였다는 點에서 더욱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小說에 있어서 그들 知的 主人公(intellectual-hero)은 단순히 作品의 內的 效果만을 爲해서 創造된 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더 社會的인 意味를 지닐 수 있다. 誠實한 小說은 社會問題, 特別 現實的인 社會問題를 提起하는 것을 그 機能³⁾으로 한다고 할 때 이들 知的 主人公의 役割은 重要한 社會的 意味를 지니게 된다. 다시말하면 그들 主人公들이 日帝治下라는 狀況下에서 現實을 어떻게 受容하고, 어떠한 姿勢를 取하고 있으며, 그러한 現實認識의 姿勢가 正常한 것이 있는가 하는 問題는 한번쯤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主人公들은 當代의 指導者의 立場에 있던 知識人의 모습을 反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作中主人公의 樣相이나 機能은 日帝治下의 知識人들의 精神的 意味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主人公을 通해 當代의 作家 意識도 아울러 把握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日帝下 韓國小說에 나타난 知識人의 樣相을 살펴 보고자 한다.⁵⁾

Ⅱ. 知識人의 概念과 特性

1. 知識人의 概念과 範疇

知識人(intellectual, intelligentsia)이란 말은 매우 애매하고 抽象的인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 用語처럼 많이 使用되는 用語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知識人이란 概念이 明確하지 못해서 起因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하여 우선 知識人의 概念을 살펴 볼 것 같으면,

1) 文化, 즉 藝術이나 科學, 宗教를 包含한 人間의 象徴的인 世界를 創造하고 分配하여 應用하는 者⁶⁾

2) 그 社會內에 未定向的인 지로 잠재하고 있는 機能的인 要因을 골라내어 그것

3) Albérès: L'Aventure intellectuelle du xx^e Siècle(鄭明煥譯)p. 94.

4) 文學이 精神史로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는 것은 思想界나 一般學界가 理論的인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文學作品에서는 그 具體的인 實例를 보여 주는데 있는 것이다. 金治洙: 侵略과 抵抗의 양식, 文學과 知性所收, 文藝文庫, p. 97.

5) 筆者는 本稿에서 1920年代 作家, 特別 廉想涉, 玄鎮健, 崔喲海의 作品을 對象으로 하고 30年代 作品은 續篇으로 다루고자 함을 밝혀 둔다.

6) S. M. Lipset; Political men, New York, 1960. p. 311.

이러한 方向을 부여해 주고, 또 그것에 일정한 意味까지 부여하려는 사람⁷⁾

3) 知識人이란 것은, 구체적인 目標을 追求하는 사람이 되기 보다는, 一般의인 意味에서는 藝術이나 科學, 또는 形而上學的인 事象의 實踐등, 다시말하면 非物質的인 性格에서 기쁨을 찾고있는 사람들로써 “우리의 王權은 現在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사람들을 總稱하는 말이다.⁸⁾

4) 知性이라는 것은 批判이나 創造, 또는 觀照의 精神的인 側面을 말한다. 知能이 理解, 操縱, 調整, 適應을 追求하는 것이라면 知性は 考察하고 경탄하고, 理論化하고 批判하며 想像하는 能力을 意味한다.⁹⁾

5) 知識人이란 知識 그 實體가 自己 環抱이 되어있는 사람들, 즉 이데올로기의 生産者들이다.¹⁰⁾

이런에서 諸家의 見解를 中心으로 知識人의 性格을 살펴보면 知識人이란 物質的인 世界보다는 精神的인 世界를 志向하는 人物로서 새로운 價値體系를 創造하고, 分配하고, 應用하는 人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知識人의 類型과 範疇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側面에서 살펴 볼 수 있겠다. 그 첫째는 藝術이나 科學, 宗教를 包含한 人間의 象徴的인 世界를 創造하는 類型으로서의 知識人(第一類型)과 둘째로는 創造者(第一類型的인 知識人)에 의하여 創造된 것은 分配하는 類型(第二類型), 셋째로 職業上의 일의 一部分으로서 象徴的인 世界의 產物을 應用하는 類型(第三類型)의 知識人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知識人의 類型을 設定할 때 그 各各의 類型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第1類型的인 知識人: 思想家, 學者, 作家, 藝術家, 編輯者 等

第2類型的인 知識人: 演技者, 教師, 記者 等

第3類型的인 知識人: 醫師, 辯護士, 企業・官廳・勞働組合・教育機關에 從事하는 專門職等¹¹⁾

그러나 여기에서 知識人의 類型은 職業을 中心으로 分類한 것이기 때문에 失業者로서 知識人은 除外되고 있다는 點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正常的인 社會에 있어서는 知識人으로서 失業者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問題이지만 韓國의 경우에는 例外的인 現象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失業者로서

7) Edward Shils; The Intellectuals and the Power, 1958. p. 6.

8) Julien Benda; Louis Coser, men of Idea p.11 再引用.

9) Richard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Inc. p. 25.

10) 宋建鎭; 民族知性的인 探究, 創作과 批評社, p. 105.

11) 金允植; 主體와 進歩의 갈등, 韓國의 知性所收, 文藝文庫, p. 47 參照.

知識人の 意味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것은 日帝治下에 있어서 失業者로서 知識人은 두가지 意味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日帝下 現實이 그들을 受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一途과 다른 하나는 그들 知識人들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日帝에 協力하지 않겠다는 民族的 證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點이다. 그리하여 第4類型으로 專門學校 以上の 學力所有者로서 失業者도 包含시켜서 살펴 보려고 하는 것이다.

2. 知識人の 特性과 社會的 機能

以上에서 簡略하게 知識人の 概念과 그 範疇에 對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여기에서는 知識人の 特性과 社會的 機能에 對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Lewis Coser는 知識人の 社會的 機能을 다음과 같이 밝혀 주고 있다.

……知識人이라는 것은 思想에 對한 論者이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의 主唱者이기도 하다.……中略……사람들에게 批判的인 態度를 함양시켜주고 이것을 深化시켜주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따라서 知識人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時代나 狀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思想이나 理念까지도 客觀的으로 考察하여 이것들을 더한층 세밀하게 批判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이러한 機能의 遂行過程에서 知識人들은 때때로 사상사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認識될 때가 있거 때문에 어느 意味에서는 現存하는 知的인 平和의 코란자이기도 하다.¹²⁾

이와 같은 見解는 知識人の 性格과 機能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知識人이란 단순히 知識의 所有者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現象이나 思想 혹은 이데올로기의 創造者로서의 使命을 지니고 있음을 看過할 수는 없다. 이러한 點에서 싸르프르는 學者와 知識人을 區別¹³⁾하고 있는 것이다. 學者의 使命이 단순히 學問의 研究에 있다면 知識人은 비단 알고 있다는 事實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現實에 參與하여야 하며, 이때 現實參與란 政治現實에 參與한다는 좁은 意味에서가 아니라 知識이 하나의 全體的 社會認識으로서 現實을 批判하고, 民族에 方向을 提示하는 先驅者로서 歷史에 參與하는 보다 높은 次元에 있어서의 現實參與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特히 文學作品 속에 나타나는 知識人은 一般社會에서 분수 있는 知識人들과는 다른 一面을 지니고 있음도 否認할 수 없다. 왜냐하면 作品 속에 登場하는 人物들은 한결같이 作者의 對社會意識에 바탕을 두고 意圖的으로 創造되어진 人

12) Lewis Coser; *ibid.*, p. 19.

13) 宋建鎔: 民族知性的 探究, p. 44參照.

物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Lowenthal은 文學作品中에서 發見되는 人間의 本性에 關한 一般化된 性格을 檢討하면 社會 및 政治的인 變動과 關係있다.¹⁴⁾ 고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韓國의 경우는 더욱 社會 및 政治的인 側面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렇게 분 때 적어도 日帝治下의 암울한 時代的 狀況에서 作家들은 그들의 主人公, 特別 知識人을 主人公으로 設定하여 現實의 桎梏을 克服하려고 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後進國 乃至는 植民地下的 知識人의 使命은 더욱 重要한 意味를 지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後進國 知識人의 使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때 더욱 重要한 意味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外國人의 強壓統治, 植民主義, 帝國主義에 對抗하여 自律的이고 完全한 政治的인 독립을 이루어야 하고, 둘째로 先進國에 對한 後進國의 人種의 不平等을 克服하여야 하고, 셋째로 低開發로 인한 經濟的 貧困과 비참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課業은 順次的인 것이 아니고 同時에 重合되어 一時的인 解決을 기다리고 있는 點이 問題를 더욱 複雜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現代化의 過程을 저지할만큼 強力한 낡은 제도 속에서 해내야 한다.¹⁵⁾

고 할 때 실로 後進國의 知識人은 二重, 三重의 社會的 責任을 擔當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結果 後進國의 知識人은 指導者的 要件¹⁶⁾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知識人의 社會的 機能을 더욱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앞에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1920年代의 政治史的으로는 日帝下의 不安과 아울러 近代의 市民意識이 確立되지 못한 狀況下에서 韓國民族의 精神의 支柱로서의 知識人의 言行은 民衆의 生活座標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 20年代 現實과 知識人 問題

20年代 知識人들은 이러한 知識人의 使命 앞에 苦悶하고 있었던 것은 사

14) Leo Lowenthal; Literature and Image of man, Beacon press, 1957.

Introduction 參照.

15) 高永復: 先進國의 知識人과 後進國의 知識人, 思想界 98號所收, p. 61.

16) Merriam은 指導者的의 要件으로서 ①大勢를 觀測할 수 있는 能力 ②相對方을 說得하고 利害關係의 충돌을 調整하고, 統合할 수 있는 能力, ③自己의 아이디어 혹은 方向提示를 劇的으로 表示할 수 있는 能力, ④方向, 政策, 이해올로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能力 ⑤勇氣와 決斷力을 提示하고 있다. 申相楚: 民主政治와 指導者, 思想界 66年 2月號別冊우록 p. 18再引用.

신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그들 當代 知識人들은 20年代 現實을 어떻게 認識하고 그러한 現實을 어떻게 對處해 나가려고 했든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當代 知識人들은 20年代의 時代狀況에 不安을 느끼고 있었다는 點이다. 이러한 這問의 事情을 吳相淳은 다음과 같이 披瀝해 주고 있다.

우리는 人生이니 人生苦가 있고, 人間이니 社會苦가 있고, 時代에 處해 있으므로 時代苦가 있다. 이 諸苦 中 어느 것이 深刻한 苦가 아니라하는 就中 우리 運命에 對하여 直接 影響을 미치고 가장 遲切하고 가장 切迫한 關係와 支配權을 가진 것은 時代苦이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時代의 子인 高徒이 特別히 우리는 非常한 時代에 處해 있는 까닭이다. 故로 時代苦의 問題를 解決하면 其他의 問題는 比較的 쉽게 解決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장 重要한 先決問題는 時代苦이다.¹⁷⁾

上記文에서의 時代苦란 물론 日帝治下의 生活相을 지칭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실상 1920年代에 있어서 모든 苦難은 日帝治下라는 時代的 狀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時代苦 앞에서 當代 知識人들은 그것을 벗어나려는 強한 意志를 보여주기도하는 오히려 靜寂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음¹⁸⁾은 當代의 現實이 너무나 切迫했고, 또한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知識人들이 절망에 빠져들지단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當代의 現實을 克服하려는 노력을 目睹할 수 있게 된다. 一例를 들면 1923年 開闢誌에 실린 다음과 같은 句節을 읽을수 있다.

동투여 오늘날 悲觀하지는 말자. 우리 朝鮮사람이 政治적으로 民族運動을 成就할 可望이 現場에, 뜨는 經濟적으로 社會運動을 成就할 可望이 당장은 앞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悲觀하지는 말자. 결코 悲觀하지는 말자. 國外에서 創造派와 改造派가 눈을 흘키고 國內에서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이 서로 길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悲觀하지는 말자, 결코 悲觀하지는 말자. 政治的 勢力을 背景으로한 日本사람이 「돈모리」하는 運動이 막 들이밀림으로 인하여 조선사람의 生活이 날로 글러가는 것(都市, 農村)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찌 平安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한 具體的 慘狀을 耳聞코 또 목격할 때 우리의 감회가 어찌 沈沈할 수 있으랴. 그러나 우리는 悲觀하지 말자.¹⁹⁾

17) 吳相淳: 時代苦와 文學, 現代評論叢筆選, 漢城圖書出版社, p. 9.

18) 吳相淳: 上揭書, p. 12 參照.

19)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p. 157 再引用.

여기에서 우리는 當代 知識人의 苦悶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日帝의 侵略으로 經濟的인 收奪과 政治的으로 不安 속에서 絶望하지 않으려는 強한 意志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悲觀하지 말자고 強調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悲劇的 狀況을 타개할 뚜렷한 方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작 연명을 만들어 相互 正當한 批判을 할 필요²⁰⁾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歷史意識의 貧困에서 起因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20年代 韓國現實이 짧은 時間에 外國의 文物을 받아들인 當代 知識人들에게는 너무나 막대한 課題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一般學界나 知識人들이 方向感覺을 喪失하고 있을 때 文學家는 그들의 作品속에 當代的 現實을 形象化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는 點에서 重要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Ⅲ. 20年代 作品에 나타난 知識人의 樣相

20年代 韓國의 詩가 大部分이 “죽음”이나 “幻想” “密室” 따위를 노래부르고 있었다는 것과 같이 20年代 小説에서도 밝고 健康한 이야기보다는 암담한 現實을 주로 다루고 農村의 貧困과 都市 勞動者를 즐겨 다루고 있음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當代現實이 提供한 움직일수 없는 素材²¹⁾인 것과 마찬가지로 當代 知識人의 양상을 作品으로 形象化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는 重要的 課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20年代의 作品 가운데서 知識人을 主人公으로 하는 作品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廉想涉：標本室의 青개구리(1921) 조그단 일(1926)

玄鎮健：貧妻(1920) 술勸하는 社會(1921) 피아노(1922) 유린(1922) 墮落者(1922) B舍監과 러브·리타(1925) 私立精神病院長(1926) 郵便局에서(1926)

20) 成大勳은 「知識階級の 不安과 朝鮮의 不安과 朝鮮文學의 將來」라는 글에서 “나는 朝鮮의 知識階級の 文人은 일관된 커다란 이 社會의 不安의 世界에서 眞理를 追求하고 學의 知識을 깊이하여 歷史的 進步를 圖하기 爲하여 自己의 知識을 貢獻하려는 인텔리겐차, 그리고 새로운 哲學史를 一生涯를 通하여 만들려고 努力하고 才能과 전문이 의하여 社會의 으로 活動하려는 인텔리겐차, 모든 創造의 才能으로서 社會生活에 對하여 될수록 眞實을 달하려는 文學者들이 어떠한 聯盟을 만들어 知識階級이 現實朝鮮社會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相互 正當한 批判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洪恩重：韓藝知性의 故鄉 所載, p.211 再引用.

21) 崔載瑞：文學과 知性, p.121.

崔曙海：八個月(1926) 葛藤(1928) 轉機(1928)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1929).

以上の 作品은 한걸같이 20年代 知識人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多樣的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들 作品을 中心으로 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廉想涉의 경우

廉想涉은 日帝下의 現實을 누구보다도 克明하게 보여준 作家다. 그것은 그만큼 作家의 現實觀이 날카로웠다는 事實과 直結되는 問題이기도 하다. 그는 日帝下에서 作家로서 自己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나는 다만 率이든 不率이든 朝鮮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아도 朝鮮의 이요, 싫어도 朝鮮의 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朝鮮의 時代相, 朝鮮의 生活, 朝鮮人의 感覺을 떠나서 造作되는 朝鮮人의 藝術의 存在를 否定하고 그 모든 것을 끌고나가는 努力이 아닌 一切의 노력의 價値를 拒絕할 따름이다. 自己 民族이 處한 時代, 環覽, 自己 民族이 가지고 있는 思想, 感情, 呼訴, 希望을 떠나서 世界의 일수도 없고 人生을 爲한 것일 수도 없으며, 심하게는 藝術의 일 可能性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愛國의 이라는 偏狹한 意味가 아니라 널리 人生을 爲한 藝術이라는 見地에서 主張하는 것이다.²²⁾

이러한 陳述은 무엇보다도 作家가 現實을 철저하게 認識했을 때만 비로서 可能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作家의 主張이 作品으로 어떻게 形象化되었는가 하는 問題가 보다 重要한 것이다.

이제 그의 作品 「標本室의 靑개구리」 「조그만 일」을 中心으로 그들 作中 人物이 어떻게 形象化되고, 나아가서 20年代 現實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標本室의 靑개구리」는 既存의 文學史에서는 文藝思潮上의 特徵으로 많이 論議되었지만 그것이 寫實主義냐, 自然主義냐 보다도 20年代 知識人의 精神界를 表像해 주고 있다는 點이 보다 重要하다고 하겠다. 이 點은 作者 스스로 밝힌 글 가운데

……精神的 原因을 가진 者가 空想과 懊惱에 極하여 內的 近因으로 말미암아 發狂한 후에 비로서 夢幻의 世界에서 自己의 未類한 理想의 一部를 吐함을 그렸다. 이는 3.1運動 후의 時代相을 象徴的으로 그린 것이요, 이와같은 時代의 青年의 苦

22) 廉尙燮：時調에 關하여, 朝鮮日報, 1926年 10月 6日字.

關係를 表現한 것이었다.²³⁾

고 말하고 있듯이 <나>와 <金昌億>으로 代表되는 20年代 知識人의 모습을 끈질기게 追跡해가고 있다. 一般的으로 小説의 作中主人公이 한 사람인데 比하여 이 作品은 二重의 主人公으로 設定됨으로서 二重의 視點을 보여주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나>와 <金昌億>은 表面的으로는 別個의 人物이지만 실상은 하나에 불과하다²⁴⁾ 그러나 作家의 視線은 <金昌億>에게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볼 때 <金昌億>의 發狂의 原因은 當代的 現實의 不安이나 極積 때문이기 보다는 家庭事에 더큰 比重이 있다고 하겠다. <金昌億>은 몇 年을 사이하고 누이의 죽음, 父母의 죽음, 그리고 本妻의 죽음, 그리고 밝이한 再娶한 아내와 琴瑟도 좋았으나 <애처의 강렬한 사랑은 힘에 겨워서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었으며> 마침내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건>으로 四個月의 옥중生活을 하고 나왔을 때 아내는 젊은 양복장과와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그 結果 <金昌億>은 精神異狀者가 되는 것이다.

피로, 양분, 분노, 낙심, 비탄, 미가지(未可知)의 운명에 대한 공포, 불안…… 인간의 고통이란 고통은 노도와 같이 일시에 치밀어 와서 접질만 남은 그를 살아 죽이려는 듯이 덤벼들었다.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一節

이러한 個人的 問題가 原因이 되어 發狂한 事實을 너무나 3.1運動 以後의 時代相과 密着시킴으로서 現實의 暗黑面을 銳利하게 批判²⁵⁾하고 있다는 見解는 再考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물론 作家의 作品執筆의 動機를 말하는 가운데서도 밝힌 바와같이 當代的 暗黑面을 그리려고 한 것은 事實이

23) 金鍾均：廉想涉研究，高大出版部刊，p. 81 再引用.

24) 「標本室의 靑개구리」의 構成에 對해서 成賢慶教授는 <本作品은 現實 속의 <나>를 철성관 위의 <개구리>와 類推化시켜 提示함으로써 <나>의 限界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와는 전혀 對照的인 또 하나의 <나>, 즉 理想속의 <나>인 <金昌億>을 통해서 그의 無限한 活動 可能域을 提示하고자 한 것이 本旨>라고 지적해 주고 있다. 成賢慶：「標本室의 靑개구리」의 構造，韓國語文論叢所 叢，pp. 512~518 參照.

25) <……金昌億이 미처게 된 과정이나 動機의 說明 내지 提示가 個人的인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들은 個人的이면서도 同時에 社會的인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金昌億>이라고 하는 한 個我에 加해진 悲運과 外部現實—異民族 日帝의 이땅 強占，西洋의 異質의 文明과 宗教의 그릇된 受容—을 同時에 表象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成賢慶：ibid. p. 513.

다. 그러나 作者의 意圖 그 自體와 作品과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는 點을 認定할 때 作品自體에는 뚜렷한 陳述이 없으므로 事實이다. <나>는 狂人 <金昌燮>을 羨望의 對象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不安한 時代에 살고 있는 知識人으로서 當代의 不安을 克服하려는 強한 意志를 보여 주거나 方案을 찾지 못하여 神秘主義的 現實逃避에 몰락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불의의 事件>이나 <東西新陸會> 云云은 日帝下 現實과 關聯져워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標本室의 靑개구리」는 3. I 運動以後 知識人의 醜態과 不安을 바탕으로 그것을 超克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知識人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조그만 일」은 文人인 主人公 <길진>이의 아내가 가난에 시들려 쟁볼을 마시고 自殺을 企圖하는 이야기다. 이 作品은 東京에서 어느 女性이 간장을 먹고 落胎를 할 뻔했다는 所聞을 듣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 써여진 短篇²⁶⁾이지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20年代 失業者問題와 窮乏化問題를 보여줌으로서 現實을 批判한 作品이다. 그것은 作品 <타이틀>에서 人間의 죽음이란 가장 거창한 問題를 다루면서 <조그만 일>이라고 한 것과 無關하지 않다.

「죽더라도 내 손에서 죽어서는 안돼! 마음대로 나가서 죽든지 내가 죽은 뒤에 죽든지……하지만 지금 죽어서는 안돼! 안돼! 밥은 어디가든지 있을게요. 사내는 나만이 아닐지다. 밥을 못먹어 죽을 목숨이 있거든, 살아나서 어떤 남자에게든지 밥 먹어 즐미로 가면 그만일게 아닌가? 아무도 갈리지 않을게요. 아이는 떨어저도 좋으니, 내 앞에서 죽지만 말란 말야! <조그만 일>의 一節

먹고 살기 爲해서는 知識人의 道德的 善惡問題는 完全히 度外視되고 있을 수 있다. 愛情이 결핍으로 인한 破鏡이 아니라 父母의 命을 拒逆하고 戀愛結婚이 生計가 극도로 威脅 당하자, 그들에게 唯一한 희망은 가난에서 벗어 나려는데 集中되고 있다. 그것은 결코 主人公 <길진>이가 無能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強靱한 生命력을 가지고 東奔西走하지만 現實은 그들에게 生計를 꾸려나갈 經濟的 바탕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뒤에서 崔曙海의 作品을 다룰 때 다시 언급하겠음) 그러나 主人公 <길진>이는 絕望하지 않음으로서 꿈을 키워나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아내를 살려 놓았고, <이원>이란 돈이 들어왔고, 미움을 끌어 아내 <혜순>이에게 먹임으로 現實을 解決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解決은 問題의

26) 金鍾均: 廉想涉研究 p.124.

根本的 解決일 수는 없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廉想涉이 20年代 知識人の 窮乏化現象을 認識하고 있었다는 點은 높이 評價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當代的 現實을 어떻게 克服해 나아가 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方向을 提示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겠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처럼 廉想涉의 小説에 나타난 知識人の 樣相은 한마디로 消極的인 면서 同時에 現實逃避의 性向마저 지니고 있다. 그것은 日帝下 韓國知識人の 特性을 ①保守的 性格, ②消極的 性格, ③現實逃避 또는 現實觀照의 態度 ④道德約 決意가 強調된 點²⁷⁾이라고 규정할 때 어느 程度一致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作家가 <있는 그대로>를 내세우는 리얼리즘의 產物이라 하더라도 作家 스스로 當代 知識人으로서의 使命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므로 그의 作品에 나타난 知識人도 當代約 現實과 正面으로 對決하지 못하고 平面的으로 問題解決을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2. 玄鎭健의 경우

憑虛 玄鎭健은 <白潮>의 同人이면서 그들과는 달리 當代約 現實에 깊은 關心을 가졌다는 事實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時間과 場所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存在치 못하는 것이다. 달나라의 逍遙도 그만둔 일이다. 구름바다의 遊戯도 그친 일이다. 朝鮮文學인 다음에야 朝鮮의 땅을 든든히 디디고 서야 될 줄 안다. 現代文學인 다음에야 現代의 精神을 힘있게 呼吸해야 될 줄 안다.²⁸⁾

西歐文化가 밀려들어오고, 거기에는 日帝의 약탈과 壓迫이 激烈한 1920年代에 있어서 이렇게 強烈한 民族魂과 當代的 現實認識의 필요성을 力說한 玄鎭健의 作品은 既往의 文學研究者에 의하여 肯定的으로 評價되어 왔다.

玄鎭健의 作品은 大部分이 主人公을 知識人으로 設定하고 있다. 이러한 面은 多分히 自叙傳的 要素가 강한 것²⁹⁾으로서 그들 知的主人公이 갖는 特

27) 金成植: 韓國知識人の 現在와 將來, 思想界通卷 98號, pp.78~9 參照.

28) 玄鎭健: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把握, 開闢 65號, p.134.

29) 李商燮: 身邊體驗小說의 特質, 文學思想通卷 7號, pp.326~334 參照.

李在銑教授도 <거의 삼인칭小說보다는 “이히로망”으로서의 “나”가 叙述者로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自傳的이거나 自己透影의 要素가 매우 강한 內觀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고 했다. 韓國短篇小說研究, p.231.

徵을 李在銑教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고 있다.

……“인텔렉츠크얼 히어로”나 “인텔렉츠크얼브르조아”의 등장이 그것이다. 실사 이들이 職業의 分業現象이 이루어진 現實의 社會에서는 이렇다할 하나의 職業으로부터도 소외되고 脫落된 人物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이와같은 知識人的 登場은 스스로 知識人임을 자처하는 當代的인 作家의 精神의 矜持가 文學으로 反映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中略…… 말하자면 20年代의 玄鎭健과 其他 일련의 作家가 다른 知識人的 안타고니즘은 30年代에 와서 브르조아적 俗物主義에의 抵抗으로 나타났으며, 玄鎭健은 20年代 知識人的 肖像을 유감없이 그렸다.³⁰⁾

그리하여 憑虛의 作品은 作中 知識人的 類型을 두가지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知識人이 當代的 現實과의 照應에 의하여 現實과 對決을 꾀하는 作品系列이며 다른 하나는 20年代 知識人的 精神至上主義의 경향과 知識人的 僞善과 虛勢에 對한 批判精神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類型의 作品으로는 「술勸하는 社會」와 「私立精神病院長」을 들 수가 있겠다. 「술勸하는 社會」는 一般的으로 當代的 現實에 적극 對抗하는 作品으로 評價되어 왔다.³¹⁾ 그러나 자세히 觀察하면 20年代 社會制度나 日帝에 對한 저항意志는 뚜렷하지 않다. 主人公인 <남편>은 變變한 職場도 갖지 못한 채 <유위유망(有爲有望)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시키고 있다. 도매 채 술을 마셔야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흥 또 못 알아 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겠소, 내가 설 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핏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판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만 나라에 났더라면 술이나 얻 어 먹을 수 있나……. <술勸하는 社會>의 一節

上記文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는 理由는 <朝鮮社會>라는 추상적 對象이다. 조선사회의 어떠한 面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술을 마시게 하는가, 憑虛는 <남편>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무슨 사회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게 아

30) 李在銑: ibid, p. 230

31) 金字鍾: 韓國現代小說史, p. 156 參照.

鄭漢淑: 現代韓國作家論, 高大出版部, p. 96 參照.

니야, ……무어라 할까……저 우리 조선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먹게 한단 말이요. ……어찌 그럴소……또 니가 설명을 히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할시다. 거기 도이는 사람놈치고 처음은 권축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되어, 단 이틀이 못되어……中略……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다툼질, 내가 옳으니 니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쪼고 쪼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적이 정신이 바루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 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게 도무지 없지……

<술 권하는 社會>의 一節

長文의 引用이었지만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술 권하는 社會」를 韓國의 20年代에 對한 文人의 抗弁이나, 日帝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못하다. <난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民族性이다³²⁾ 그리고 그러한 民族性 앞에서 民族性의 改造나 變革을 꾀하지 못하고 조결하는 것은 오히려 當代的 現實에 敗北한 知識人임에 지나지 않는다. 敗北한 結果 現實에서의 도피 手段으로 폭음을 하게 되는 것이다.

「私立精神病院長」은 20年代 궁핍화現象을 보여준 作品이다. 樂天家 <W>는 家族의 生計를 꾸려가기 爲해서 精神異狀者를 지켜주는 職業을 가지고 充實히 살아가지만 친구와 어울려 妓生집에 들러 먹다 남은 음식을 굶주린 家族을 먹이기 爲하여 종이에 쌀 때 妓生들의 <院長宅 큰 잔치>라는 야유를 받고 憤怒하고, 그 結果 精神異狀者가 되어 自己 生活의 근거인 患者를 죽이는 悲劇을 그려주고 있다. 이것은 環境의 힘 앞에 굴복 당하는 20年代 知識人의 悲劇으로서 日帝植民地下の 現實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主人公 <W>도 그러한 비참한 現實과 對決을 試圖하지만 결국은 精神異狀者로서 敗北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憑虛의 첫째 類型의 作品에서 보여지는 知識人은 當代的 바극적 現實을 認識하고 있었지만 敗北者로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類型의 作品으로서 「貧妻」 「피아노」 「타락자」 「B舍監과 러브레터」 등이 該當된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나누면 現實에서 列外者인 知識人의 精神至上主義的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貧妻」와 나머지 作品은 知識人의 僞善과 虛勢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32) 憑虛가 지적하고 있는 民族性도 따지고 보면 日本御用學者에 依하여 誤導된 事大性, 黨派性, 屢邊性 따위로 보고 있음은 歷史意識이 欠如로 지적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民族性論은 春蠶에게 있어서 民族改造論으로 表現되었고 그 후 많은 當代知識人이 變節하게 된 要因이 되기도 했다.

「貧妻」의 主人公은 <보수없는 독서와 가치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며 날이 새며 쌓여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연케 모르는> 文學志望生이다. 그런데 아내는 돈 많은 친척을 보고 난 뒤에 男便에게 <당신도 살도리를 하세요> 라고 읍박지른다. 그때 男便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박벌이군 한터 시집을 잘 것이지, 누가 너께 시집을 오랬소!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
 <貧妻>의 一節

여기에서 우리는 作者의 精神至上的 世界와 만나게 된다. 무식한 아내를 <藝術家의 妻>로 認定함으로써 스스로 위대한 藝術家의 立場이 되어 버린다는 것은 主人公의 所望的 思考(wishful thinking)의 表現法이다. 그러나 男便의 內心에는 돈을 벌어서 호강을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딜 뿐이다. 그러다가 장인 생전에 돈 많은 妻兄의 눈 위에 멍든 것을 보고 自己의 가난을 오히려 幸福의 源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는 별로 대단치 않은 일이 처형에게 함상으로 법다갈겨 그렇게 멍이 들었다 한다.

『그것 보아, 돈 분이나 있으면 다 그런 것이야.』

『정말 그래요. 없으면 없는데로 살아도 되줄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어요.』

아내는 충심(衷心)으로 공명(共鳴)해 주었다.
 <貧妻>의 一節

여기에서 <돈 많은 者=난봉군> <돈 없는 者=선량한 남편>이라는 圖式的 思考로 그들의 가난을 克服한다는 것은 센티멘탈리스트의 自己 도취요, 現實逃避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李商燮教授는

무식하고 착한 아내의 눈물을 짜내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감격의 눈물을 흘린 기회를 얻어 카타르시스를 향유하고 있다. 결국 자기는 아무 허물도 없고, 단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었던 아내가 눈물으로써 참회를 하는 감격의 순간이 된 것이다. 근본문제는 저절로 덮여지고 말았다. 센티멘탈리스트의 문제해결 방법이 그렇다. 실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다.³³⁾

라고 지적한 것은 正을 찌른 것이다. 그러므로 「貧妻」에서의 知의 主人公도 現實認識 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作者의 浪漫性에 바탕을 둔 20年代 知識人의 精神至上的 경향을 보여준 作品이라고 하겠다.

33) 李商燮: ibid. p. 328.

한편 知識人의 僞善과 虛勢를 다루고 있는 「피아노」에서 文化生活을 爲해서 칠줄도 모르는 피아노를 사들이는 新式新婦夫婦의 이야기나 「B舍監과 러브레타」에서 學徒 앞에서 虛僞를 벗김으로서 表裏相反의 舍監을 提示해 주고 있으며 「墮落者」에서 妓生에 반하여 精神을 잃어 버리고 마침내는 무서운 病까지 얻어 胎中の 어린 것에 미칠 영향에 苦悶하는 나약한 知識人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20年代 現實과의 照應關係에서 볼 때는 별로 問題視할 性質의 것은 아니지만 10年代 知識人들이 自己省察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盲目的으로 理想의 世界를 追從한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20年代 知識人의 自己反省의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3. 崔曙海의 경우

崔曙海의 作品은 一般의으로 傾向派作品으로 過少評價되어 왔으나 결코 그의 作品은 傾向派의 作品으로 보기 보다는 20年代 韓國의 窮乏化現象을 眞率하게 그린 리얼리즘의 作品³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이미 간략하게 崔曙海에 對한 小論³⁵⁾을 發表한 바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重複을 피하기 爲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려고 한다.

曙海의 作品 가운데 知識人을 作中主人公으로 設定한 作品은 「八個月」「葛藤」「轉機」「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等으로서 모두가 文人이나 雜誌社 記者들이다. 그런데 一般의으로 曙海의 作品이 貧困의 問題를 拮据하게 다루고 있듯이 이들 知識人小說도 그와 同一한 主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때다로 말해쳐 20年代 窮乏化 現象의 한 局面으로서 그것은 다만 農村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都市 勞動者도, 都市의 知識人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八個月」이라는 作品은 병치로는 고사하고 진찰한 번 제대로 날기 어려운 知識人의 이야기다.

.....안국동서 총독부 병원까지 가려던 꽤 멀건마는 왕환 전차비를 생각하고 나는 걸어갔다. 심전이면 두부 한 그 솔까지 한 묶음 값이다. 한기는 넉넉하다.中略.....총독부병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 발은 부거웠다. 바른 손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오원 지폐를 단정단정했다. 오원이면 두 입이 열흘은 살 수 있다. 약을 먹어서는 일주일도 못 먹을 것이다.中略.....그 대신 일원짜리 위산을 사면 보름은 먹을 것이고 남은 사원은 나구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날 우뚝 섰다. 도르 돌아나왔다. 나오다가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八個月>의 一節

34) 拙稿：20年代 現實과 貧窮의 文學, 語文學 34輯, p. 212 參照.

35) 拙稿：上揭論文 pp.197~212 參照.

<나>는 다침내 무료과에 가서 진단결과 靜養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八個月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苦笑을 짓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處方인 同時에 그들 患者의 生活여건을 무시한 思想的인 치료 方法이기에 當代의 가난한 知識人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한편 「葛藤」에 있어서는 當時로서는 때 이른 知人識들이 지녔던 未熟한 意識의 萌芽를 더듬으며, 불우한 사람들에게 同情的인 未來志向의 精神³⁶⁾을 심어주고 있다. 그것은 當代 知識人이 感傷의 面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轉機」나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에서도 병치료를 할수 없어 외롭게 죽어가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自己도 끝내 그들과 같은 과정을 걸어간다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같이 曙海의 作品에 나타난 知識人은 20年代 現實을 통하여 卞當한 現實을 克服하고 그것을 思想的으로까지 轉換시키지는 못했다하더라도 當代 社會의 不滿의 原因이 무엇인가를 밝혀준으로써 社會 內에서 自己 認識의 깊은 意味를 깨닫게 하는 人物³⁷⁾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IV. 結 論

以上에서 1920年代 小說에 나타난 知識人의 樣相을 살펴 보았다. 그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겠다.

첫째로 20年代 作品에서 보여지는 知識人은 10年代, 특히 春園의 作品에서 보여지는 지식인과는 상당히 異質的인 面貌를 보여주고 있다는 點이다. 春園의 知의 主人公은 한결같이 現實을 忘却하고 西歐志向의 姿勢를 취함으로써 理想主義的인 知識人像을 創造했다고 할 때³⁸⁾ 20年代 小說에서 보여지는 知識人은 當代의 現實을 認識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 結果 그들은 當代의 現實 앞에서 不安에 떨고 精神異狀者가 되거나(標本室의 靑개구리, 私立精神病院長) 飲酒로 現實을 잊어버리려 함으로써 當代의 現實을 克服하기 위한 강한 意志를 보여 주기 보다는 敗北者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둘째로는 現實問題에 直接 關心을 갖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10年代 知의 主人公들처럼 盲目的으로 理想主義世界에 집중하지 않고 自己 自身에 對한 省察을 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리하여 當代 知識人의 盲目的인 行爲에 一針을

36) 洪以燮: 韓國精神史序說, 延大出版部, p. 104.

37) Lewis Coser: ibid, p. 19.

38) 拙稿: 春園 小說에 나타난 人間像研究, 嶺南大學院 1970年 參照.

가하는 役割을 해주었다고 하겠다.

셋째로는 20年代 窮乏化 現象을 보여줌으로써 日帝의 植民政策의 道순을 暗示해주고 있다는 點도 아울러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結論的으로 말해서 20年代 小說에서 보여지는 知識人은 當代的 現實을 認識하고 그러한 現實을 超克하려는 강한 意志를 갖지 못한채 問題의 核心을 흐리게 하거나 혹은 平面的으로 處理하고 있으며, 根本的인 問題 解決의 方案을 具體化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現實과의 對決에서 敗北하는 知識人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 主人公들은 적어도 社會의 不平이나 不滿의 잠재적 源泉을 밝혀줌으로서 그 社會의 구성원에게 社會 內에서 自己 認識의 깊은 意味를 깨닫게 하는 人物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10年代 小說에 나타난 것이 지식인이 盲目的 理想 追求라면 20年代 知識人은 現實에 바탕을 둔 消極的이고 도피적인 性向을 보여 주고 있으며 30年代 作品에 가서 비로서 知識人의 社會的 機能을 遂行하는 知識人像이 創造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30年代 作品에 나타난 知識人의 樣相은 稿를 달리하여 論하고자 함)